

# 도내 중소건설사들 '수주절벽' 암울

### 입찰제도 적용 실패 등 '이중고'... 지역내 대형프로젝트 참여 절실

도내 중소건설사들이 물량 감소·입찰제도 적용 실패 등 '이중고'로 생존경쟁에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의 재정압박 및 복지예산 확대로 절대적인 공공공사 물량이 줄어든 데다, 도내에는 새만금의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건설업계는 수주 절벽에 암울한 실정이다.

최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가 마감된 가운데 잠정 집계 결과 지난해에 비해 총실적금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사의 경우 지난해 계약액은 총 2조6055억원(건설협 회원사 기준)으로 2015년(2조5812억원) 대비 243억원(0.9%) 증가했다.

그러나 총기성액은 일부 상위업체의 신고액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적 1위를 차지한 (주)제일건설은 주택건설 실적을 앞세워 4년째 1위를 차지했고, 계성건설은 경기도와 세종시 등에서 시행한 민간실적에 힘입어 작년 7위에서 2위로 비약적인 성장세

를 보였다.

3위를 차지한 신일도 도내를 비롯한 타지역의 공사 수주로 작년 5위에서 3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이번 실적신고가 소폭 증가한 것은 도내 물량의 증가보다는 타지역에서의 민간건설물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대부분의 도내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적신고 건설업체 중 100억원 이상은 전년보다 10개 업체가 줄어든 60개

로 조사됐으며, 특히 종합건설업의 순위분기점(토건업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0억원 미만의 업체 비율은 전년 64.8%(258개)에서 66.9%(269개)로 증가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SOC 예산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민간공사 물량 감소, 새만금 대형공사 입찰 참여 저조 등으로 도내 건설업체들이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만금 같은 지역내 대형 프로젝트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내 대형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 1월 전북 수출 25.9% 감소... 선박등 부진 이유

### 전년 동월 대비 25.9% 감소한 5억 3989만 달러 기록

1월 전라북도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5.9% 감소한 5억 3,989만 달러를 기록했다. 금액으로 보면 1억 8,900만 달러 감소한 수치이다.

이처럼 감소폭이 컸던 데는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의 수출이 지난해 1월 2억 9,100만 달러에서 올 1월에는 7,400만 달러로, 2억 1,700만 달러나 급감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박 품목을 제외할 경우 1월 전북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5%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3억 3,786만 달러, 2017년 1월 무역수지는 2억 203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2017년 1월 전라북도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0%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던 대중국 수출이 '정밀화학 원료'의 수출 관할지 변경에 따른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4.7%로 반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10대 수출국 중에서는 브라질(전년 동월 대비 254.6%)과 인도네시아(동 129.1%)로의 수출 증가가 특히 눈에 띄었다.

브라질로는 자동차 부품(동 582.1%)이, 인도네시아로는 농약 및 의약품(동 112.8%), 건설광산기계(동 129.1%)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북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의 부진에서 탈피해 두 자릿수 성장을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 같은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더욱 치밀하게 대중국 수출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북 기업들이 한-중 FTA를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 이스타항공 신입 객실승무원 면접, 전주서 실시

전북 대표기업 이스타항공이 신입 객실인턴승무원 면접을 전주에서 실시했다.

이스타항공은 24일 오전부터 2017년 첫 객실인턴승무원 1차 면접을 전주 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지산업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날 신입 객실승무원 면접은 지난 1월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공고에 응모한 9,200여명 중 전북지역에 연고를 둔 16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2017년 상반기 객실인턴승무원 공개채용' 서류마감에는 총

9,208명이 지원해 340대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이스타항공 채용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부터 전북지역 채용 응시자들을 위해 지방현장 면접제도를 도입해 전주에서 면접을 진행해 왔다.

한편 전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특히 전북지역 응시생 30% 이상을 지역할당제 선발로 진행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전북은행-비바리퍼블리카 협약

전북은행은 24일 여의도 JB빌딩에서 (주)비바리퍼블리카와 Toss 회원전용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주)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대출절차를 최소화한 실시간 신용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먼저 3월말 예정으로 영업점 방문없이 Toss 앱에서 실시간으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간편한 모바일 프로세스로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대출금리 인하 및 신용등급상향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 전개공, 혁신도시 3단지 예비 입주자 모집

전북개발공사는 전북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 인근에 위치한 혁신에코르 3단지 공공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전세가의 70% 수

준으로 임대공급(606세대, 전용면적 84㎡형)해 지난 2015년 9월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최초 입주 후 입주자 사유로 인한 퇴거로 발생된 공개세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개세대 발생

순서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내 후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또는 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또는 시설관리부(063/280-7612~7)에서 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농협, 행운광광사은예금 출시

### 4월 21일까지 전국 농·축협 통해 한시 판매

전북농협은 정유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의 마음을 담은 '2017행운광광사은예금'을 출시하고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2개월간 전국 농·축협을 통해 한시 판매한다.

2017행운광광사은예금은 개인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본인의 목돈운용 계획에 맞춰 가입기간 및 이자지급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도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금액은 최소 500만원 이상이다.

농협은 상품의 출시와 함께 5가지의 다양한 새봄맞이 이벤트를 펼치며 가입고객 중 총 2,574명에게 추

첨을 통해 순금골드바 10돈, 안마 의자, 김치냉장고, TV 등 총 1억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특히 고객들과 소통하며 사랑받는 농·축협을 지향하고자 '우리지역 칭찬 댓글 달기' 이벤트를 펼쳐 참여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농촌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비예금상품과 동시가입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통해 순금 1돈, 홍삼제품 등을 제공한다.

강태호 본부장은 "2017행운광광사은예금 고객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한진 전북본부, Eagle Eye 진단팀 발대식

한진 전북본부는 24일 김라현 본부장을 비롯한 노사 주요 간부 및 도내 진단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agle Eye 진단팀'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진단 전문가들은 "첨단 과학화 장비를 총 동원해 안정적 전력공급의 장애가 되는 요소를 발견 즉시 조치해 무고장, 무사고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다짐했다.

전북본부는 2010년 전사 최초 본부합동 진단팀을 창단, 활동해 왔으며, 올해 'Eagle Eye 진단팀'에서는 사업소 진단 인원 부족 해결을 위해 진단 인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소 순회 점검 시 진단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본부 및 사업소 고장 예방에 크게 기여한 'Eagle Eye 진단팀'은 30여 명의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인재용 기자

매주 수요일에 2개 팀이 10개 조로 나눠 10개월 간 본부 및 사업소의 모든 배전설비에 대해 초음파, 열화상 카메라, 광학 쌍안경 및 카메라 등 최첨단 과학화 장비를 동원 불량 기자재 적출 및 위해 개소 진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김라현 본부장은 발대식에서 "어떤 경우든 모든 고장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선제적 대응 자세를 강조한 후 "우리 본부가 그동안 최첨단 진단장비 사용에 대한 축적된 역량과 기술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진단요원들은 "무결점 전력공급은 반드시 해낸다"는 각오를 담은 '희망박'을 터트린 후 순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본부 캐치프레이즈인 'Change 業, Best 全北'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